

유럽제국의 無鉛휘발유 보급확대

최근 유럽제국은 환경대책이 강화되면서 無鉛휘발유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.

유럽지역의 無鉛휘발유보급은 주로 북서유럽 및 스칸디나비아제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. 87년말 현재 無鉛휘발유 보급율을 보면, 西獨이 35%로 가장 높고, 다음에 덴마크 33%, 스웨덴 33%, 스위스 27%, 오스트리아 22%, 노르웨이 17%의 順이며, 英國, 프랑스, 이탈리아는 0.1% 수준에 머물고 있다.

西獨의 無鉛휘발유 보급율은 오는 연말까지 50%선에 이를 전망이다. 덴마크는 앞으로 3~4년 안에 같은 수준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유럽정유업계는 오는 90년대초까지 無鉛휘발유 공급비중이 40%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, 無鉛휘발유 정제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.

한편 美國과 日本은 각각 74, 75년부터 無鉛휘발유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최근의 공급비율은 각각 74%, 99%에 이르고 있다.

EC환경장관들은 지난 85년초에 회원국내 無鉛휘발유의 전면공급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으며, EC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無鉛휘발유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유럽제국은 無鉛휘발유의 소비촉진을 위해 유연휘발유

유럽의 無鉛휘발유 보급현황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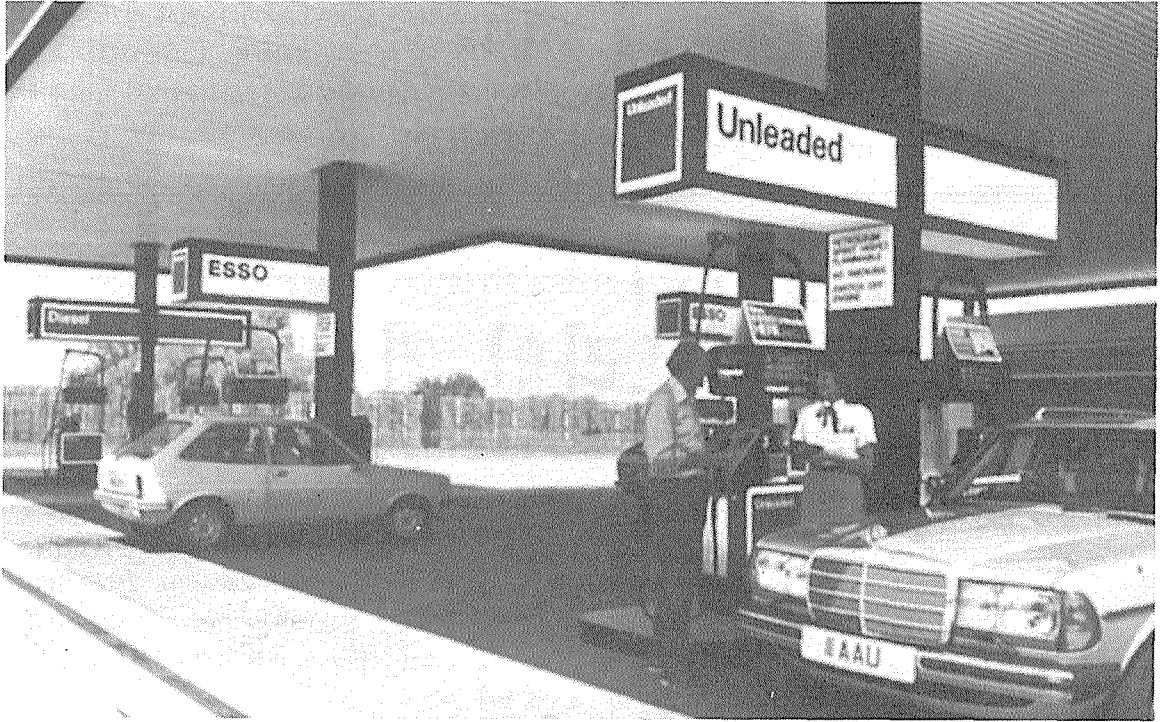
	西獨	덴마크	스웨덴	스위스	오스트리아	노르웨이	기타*
점유 비율	35	33	33	27	22	17	0.1
보급 시점	1985. 4	1984. 1	1986. 1	1986. 7	1985. 10	-	-

註 : *영국, 프랑스, 이탈리아 등임.

EC의 無鉛휘발유 보급확대계획

보급 대상	시행일	비고
2000cc 이상 신규승용차	1988. 10. 1	3원촉매장치 부착
" 신규자동차	1989. 10. 1	"
1400~2000cc 신규승용차	1991. 10. 1	산화촉매장치 부착
" 신규자동차	1993. 10. 1	"
1400cc 미만* 신규승용차	1990. 10. 1	"
" 신규자동차	1991. 10. 1	"

註 : *1,400cc미만의 승용차·자동차에 대한 보급은 잠정적 방침임.



유럽제국은 최근 환경대책이 강화되면서 無鉛휘발유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.

에 비해 소비세 및 수입세 인하등 세제감면을 통해 低價를 유지하고 있다. 이에 따라 유럽제국의 無鉛휘발유 가격은 대체로 유연휘발유에 비해 1당 2.3~7.7센트 정도 저렴하다.

그러나 세제유인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프랑스, 이탈리아의 無鉛 휘발유가격은 유연 휘발유에 비해 1당 4.5센트 정도 비싸다. ☒

말로하는 절약보다

한등끼는 손길먼저